

## 【 국내금융 뉴스 】

### 보험설계사의 잦은 이동 급증

- 높은 판매 수수료를 따라서 보험회사를 옮겨 다니는 이른바 ‘철새 보험설계사’들이 지난해에만 1만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.
  - 보험업계에 따르면 FY2009 연 2회이상 보험회사를 옮겨다니 보험설계사는 전체 보험설계사의 3.2%에 달하는 총 1만 6,039명으로 조사됨.
    - 연 3회 이상 옮겨다니 보험설계사도 2,228명으로 나타났으며 1년에 12번이나 이동한 보험설계사도 있음.
  - 1년에 2회 이상 이직한 보험설계사는 2005년 3,600여명 수준에 불과했으나 2007년 7,200여명으로 2배로 늘어난 이후 2009년 1만 6,000여명을 기록하여 4년동안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.
  -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중 1년에 2회 이상 이직한 경우가 전체의 1.5%에 불과했으나 GA(독립법인대리점) 소속 보험설계사의 경우는 6.7%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GA소속 보험설계사들의 이직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.
  
- ‘철새 보험설계사’의 급증은 보험소비자들에게는 보험의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시키고 보험회사에게는 추가 비용의 부담을 발생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.
  - 이동이 잦은 ‘철새 보험설계사’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지는 이유는 보험회사 및 대리점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등을 내세운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관행이 심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.
  - ‘철새 보험설계사’들의 증가는 보험갈아타기 등 ‘승환계약 횡행’, 담당자가 없는 ‘고아계약 양산’으로 보험이미지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임.
  -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보험설계사들에게 투자한 막대한 교육·관리비가 무용지물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신입 설계사 양성에 대한 추가지출, 일정기간의 실적부진, 고객이탈 등의 손실이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이어지고 있음.
  - 생·손보험회는 지난 7월 ‘보험설계사 경력 공유시스템’ 구축을 통해 보험설계사의 재직기간, 모집계약·품질보증계약·민원해지 건수, 법규위반 제재사항 등 모든 경력을 공유하기로 했으나 시스템 개발에서 도입·정착 등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.

(보험사들, 철새 설계사 급증에 골머리 등, 보험일보 등, 10/14)